

행복한 그리스도의 증인

신명기 33:29

정화권 선교사님 (필리핀 바기오 예수선교교회)

하나님의 참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넘치고 있음을 느낀다. 전에도 몇 번 되었지만, 이번에 유난히 더 뜨겁게 그 크신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는 것을 느낀다. 오늘 아멘의 고백을 20번 만 해 보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구나.'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란다. 오랜만에 찬양대의 찬양과 오르간 반주 속에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예배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예배 다운 예배에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깊고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부족한 선교사를 세워 주신 것을 생각하면, 최목사님께 죄송하고 또한 감사한다. 선교사를 주일낮예배 강단에 세워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불러주시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강단 말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선교사를 불러 주셨겠는가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영세 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왜냐하면,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전도자이기 때문이다.

서론 : 행복한 그리스도의 증인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행복한 전도자다, 나는 행복한 언약의 백성이다 하고 외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뻐하며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사용해주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 넓고 깊고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약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그런 일이 많이 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생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한 사람을 세우다 같 것이니까 아무 걱정이 없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작은 혹이 발견되었다. 암은 아닌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 MRI 촬영을 해 보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했는데 답이 나왔다. 암에 걸렸어도 상관없는 것이다. 암에 걸렸다면 내 수명이 시한부임을 알게 될 것 아닌가? 그러면 그 날을 계수하면서 선교사로,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확실하게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나는 여기에 섰다.

1. 행복한 그리스도의 증인 된 이유

(1)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못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유 없이 구원하셨다. 아무 것도 묻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신학을 시작해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생겼다. 근육암이라는 병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갔던 것이 1985년이였다. 3개월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덤으로 30년을 주셨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선교사로, 전도자로 살아왔다. 지금 또 몸에 사인을 주신다면, 그때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붙잡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

녀요 전도자입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고백이다.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는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아무리 건강해도 몸 속에 있는 작은 혹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있는 응답이 무엇인지 모르는 캄캄한 상황 속에 있다면 많은 답답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조성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모델 되신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들인가. 잘 몰라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된다. 이번에 세계렘넌트대회 때문에 한국 들어와서 이제 몇 주가 되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오셨느냐 하는 인사 한 마디를 안 한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부러 불렀다. 필리핀 사역자 몇 분을 모시고 가서 통역을 하도록 하라고 불렀다. 그래서 왔는데, 얼마나 듣지 못하던지 모른다. 그동안 기분 나빴던 것이, 아들 얼굴을 보니까 바로 풀려 버렸다. 그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을 안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문제는 소통하지 않는 아들에게 있다. 한 마디만 하면 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면 된다.

(2)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원수를 이기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

행복한 자인데, 뭐라고 하는가? "네 원수가 네게 복종하리니." 마귀 사단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은 것이다. 이 승리를 우리가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면,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될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그 계획을 숨겨두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문제에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다 준비해 두신 것이다. 문제가 곧 응답이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 롬 8:31-39을 보라.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누가 너를 송사하리요, 누가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끊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라. 어떤 조건도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전도자인 것이다.

2.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의 선교 사역

(1) 신학교, 다락방, 전도학교 사역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응답과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 많은 제자를 발견하고 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셨던 다락방 신학교는 필리핀 문교부의 인가를 받은 정식 학교다. 전 세계에 다락방신학대학은 한 군데밖에 없다. 한국에도 램넌트신학연구원이다. 오리지널 다락방신학대학은 우리 뿐이다. (웃음) 색깔을 분명히 하고 싶어서 이름을 아예 다락방신학대학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이름없이, 빛도 없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한 주간에 다락방 50개를 뛰는 사역자도 있었다.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다락방들을 전도학교로 곳곳에서 묶었다. 2015년 우리교회의 기도제목은 50개의 전도학교를 일으키는 것

이다. 지금 몇 십 개를 하고 있다. 여기 오신 목사님이 앙헬(Angel) 목사님이다. 영어로는 앤젤이다. 선교지의 천사를 여기에 또 세우신 줄 믿는다.

(2) 앙헬 목사님 선교보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7년 전에 이 교회를 방문했었다. 오늘 여러분에게 현장과 사역을 보고할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섰다. 기회를 주신 최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의 증인, 전도제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 나도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다. 10년 전에, 나에게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많은 문제와 사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을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삼아 주셨다. 필리핀에서 나는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내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정회권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참 복음을 듣게 되었고, 다락방신학교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시며 결론이시라는, 그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내가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쓰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도자의 걸음을 걷고 제자를 일으키도록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 교회 안에서 청소년, 어린이, 램넌트들이 복음을 받고 점점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있다. 하나님은 예비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삶 속에서 나는 체험하고 있다. 현장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젊은 학생,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계속 복음운동의 맥을 이어가게 되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을 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0개 이상의 다락방 문을 열어 주셨다. 모든 사람의 문제와 사건을 치유해 가시면서 역사해 가시는 복음의 능력을 나는 현장에서 체험했다. 폐병으로 죽게 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났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체험했다. 중풍으로 쓰러져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매일 가서 아침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도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 복음 들고 나갔을 때 일어나는 증거와 역사를 나는 매일 체험하고 있다. 현장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내가 계속 전도 현장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은 많은 현장의 문을 열어 주셨지만, 그 중에서 더 감사한 것은 4년 전부터 다락방신학교의 교수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셔서,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늘 아침에 참사랑교회가 어떻게 우리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지들 들었다.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왔다. 다락방신학교는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다. 다락방신학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아주 활동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이 졸업생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또 다른 램넌트를 세우고 기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 나의 두 딸도 다락방신학대학을 졸업했다. 한 명은 교육학과를 졸업해서 교사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한 명은 나와 함께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제자와 일꾼들이 일어났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사역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많은 전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전도학교를 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 전도학교를 통해서 많은 현장 목회자들이 와서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도록 훈련을 받고 있다. 많은 현장 목회자들이 신학교에 못 오지만, 대신 전도학교에 와서 복음메시지를 듣고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거기에서 점점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전도학교를 배경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전도캠프를 하고 있다. 지금 나는 82개의 전도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더 많은 전도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다. 1만 명의 선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정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 영어와 문화가 준비된 필리핀 사람들이 앞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을 꿈꾸고 있다. 이런 선교사 1만 명을 세워서 파송하도록 기도한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고 계신다. 더 넓은 세계와 선교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전도 현장에서 다시금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3) 현장전도제자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제자들을 현장에서 일시켜 주셨다. 요즘 날씨가 덥다고 아우성인데, 필리핀에서는 보통 날씨가. 여러분에게는 이런 날씨가 1년에 한 달 되지만 우리는 1년 내내 이 날씨다. 그 띄워별 속에서 우리는 현장에 나가고 있다. 장대같은 소낙비가 쏟아질 때도 현장에 보내고 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현장에 나가야 한다. 한 마디를 더해서, 눈이 와도 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웃음) 눈이 없는 열대 지방이지만, 눈이 와도 가라고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어떤 날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런 날에도 보내야 할까’ 싶을 때도 있다. 그래도 무조건 보낸다. 머리가 벗겨질 만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와 영혼이 있었다. 거기에서 강하게 훈련되고 일으켜진 제자들이 나오는 것이다.

결론 : 선교를 위한 헌신 결단

여러분이 오늘 붙잡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행복한 전도자다. 여기 앉아서 기도 조금만 하면 된다. 헌금 조금만 하면 된다.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1주일에 한국 돈 5천 원이 없어서 현장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역자들도 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신학생들이 살아나고, 말씀 듣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정운돈 목사님이 2주 전에 오셔서 전도학교에서 말씀 전하고 가셨다. 중직자들이 함께 좀 왔으면 좋겠다. 눈이 열려야 한다. 경제 회복해야 할 이유를, 현장을 보고 깨달아야 한다.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전도 때문에 현장 나가는 제자들을 보면,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필리핀은 세 시간만 비행기 타면 도착하는 곳이다. 선교 현장을 보지 않고 훑아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란다. 선교지를 밟고, 함께 기도로 물질로 시간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란다. 최고의 축복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닫고 빨리 결단하라. 20대, 30대는 결단하고 선교사로 가라. 선교사로 몇 년 갔다가 다시 와서 결혼하고 가정 꾸려라. 그것도 안 되면, 우리 가정을 전부 선교를 위해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라. 집을 팔아서라도 선교하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나도 쓰는 차를 현직인 목사님에게 드렸더니, 나는 더 좋은 차가 생겼다. 중고차 주고 새 차 받았다. (웃음) 작은 것 바치고 큰 것 받는 것이 선교다. 평생 행복한 전도자로, 행복한 증인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며, 그 족적을 후대에 남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남은 생애, 주님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